

# 새뜰마을사업 3년연속 선정 쾌거

### 임실 관촌면 방현마을 10억여원 지원 · 순창 팔덕면 월곡마을 20억원 투자

임실군이 3년 연속 새뜰마을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5일 임실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에 관촌면 방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낙후된 농어촌 마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를 개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임실군은 2015년 임실을 감성마을과 2016년 운안면 쌍암마을에 이어 올해까지 민선 6기 내내 새뜰마을사업지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수혜를 입게 됐다.

이같은 성과는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신청, 평가 준비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지가 된 관촌면 방현마을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여원이 투입된다. 마을에 방치된 빈집과 슬레이트 등이 철거되고, 대대적인 주택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담장 정비사업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의 공동생활공간인 경로당 환경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편의생활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순창군 팔덕면 월곡마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0억여원을 투

자해 마을주민들의 주거 인프라를 대폭 정비할 수 있게 됐다. 팔덕 월곡마을은 전체가구수 109호 중 공·폐가 31호, 재래식화장실 24호, 30년 이상 주택 86호, 슬레이트주택 77호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주택, 재해·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마을로 생활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마을이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해 총 20억 여원을 투자해 월곡마을의 지방개발, 빈집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물론 주민 공동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또 휴먼케어 등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이양원 기자

# 팔도장터 관광열차, 남원 공설시장 찾아오다

### 특산물 구매 등 우수 농산물 적극 홍보 기회 마련

전국 팔도의 대표 시장을 찾아가는 팔도장터 관광열차가 400여명의 수도권 관광객을 싣고 남원 공설시장을 찾아왔다. 팔도장터 관광열차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레일의 특별지원으로 대도시 소비자들이 지역 시장과 관광지를 찾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

업이다. 남원 공설시장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매년 평균 1,500여 관광객이 방문, 약자지결한 오일장의 풍경과 남원의 전통문화를 즐겼으며 올해도 상반기 6회 운행으로 2,4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엔 공설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은 남원공설시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신나는 문화공연을 즐기면서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마련한 먹거리 및 특산물 판매대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남원 고유의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지역 우수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 기회도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의 자원(마을, 관광, 농업)을 연계한 마케팅과 이벤트 등을 지속 발전시켜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의 면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심민 군수, 임실정수장 방문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과 심민 군수는 지역 상수도 시설의 근간인 임실정수장을 방문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시설 운영 및 2017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결과를 듣고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상수도 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먹는 물의 중요성과 상수원 수질 보전 대책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과 하수관로 설치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달 6일부터 24



일까지 외부전문가와 자체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취수 및 정수시설 2개소, 가압장 20개소, 배수지 13개소, 마을하수도 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설비 개선 의견과 기술 자문내용 등을 반영해 보완 및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대상 순창공장, 후원금 전달

### '청정원 순창사랑 아이사랑'에 1500만원 지원

대상(주)순창공장(공장장 임병용)은 순창군(군수 황숙주)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장 소동하)에 순창군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1,500만원 전달식을 지난 14일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은 2016년 12월 진행한 '청정원 바자회 노사공동 후원행사'를 통해 모금된 금액으로, 올해 순창에 거주하는 의료, 주거, 생활적 어려움이 발생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전자레인지 22대를 결식 아동 가정에 지원한다. 특히, 이번 '청정원 순창사랑 아이사랑 지원'은 포스터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이웃들이 직접 어려운 가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하는 대상(주)순창공장에서 매년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랑과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병용 대상(주)순창공장장은 "순창군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이 순창군의 어려운 아동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어, 희망의 불씨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의료, 주거, 생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순창군드림스타트(063-650-5091), 초록우산어린이재단(063-276-28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정신건강증진센터, 행복누리마을 관련 협약

순창군이 전라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행복누리마을 관련 업무협약을 맺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향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5일 순창군 금과면 복지회관에서는 '농촌지역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범사업-행복누리마을'과 관련한 협약체결 및 현판식이 열렸다. '행복누리마을'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농촌지역 자살률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지역주민의 인식도 조사와 정신건강서비스를 실시해 향후 자살예방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박철용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상열 전라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과 마을주민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복누리마을 사업안내와 더불어 업무협약체결, 현판 제막식,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 금과면에서는 이미 지난 1, 2월에 경제수준, 건강수준, 생명존중 의지 등 12개 항목에 대한 가정 방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오는 9,10월에는 사후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사업이 추진된다. 또, 3월부터 10월까지의 '집중도움사업'으로 고위험군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대해서 월 2회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며 여가활동 프로그램인 '백세인생' 운영을 통해 영화관람 등의 치료가 이루어진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음식물 쓰레기 바이오가스화시설 시연회

남원시는 15일 주생면 중동리 환경사업소에 설치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시연회를 가졌다. 시연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5톤을 투입해 처리시설을 시험가동하면서 보완점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남원시는 이곳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온보일러와 탄화시설의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하루 1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민간회사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으로 연간 6억8,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본격 운용되면 연간 3억여원의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박우정 고창군수 재해위험지역 현장행정

고창군 박우정 군수가 재해위험지역과 재해예방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박 군수는 15일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재해위험지역인 고창읍성 급경사지를 비롯해 고수면 고수면 생태하천 정비사업장 등 재해예방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급경사지 붕괴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고창읍성 급경사지는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침수 예방 및 홍수예방을 위해 정비 중인 고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고수면 상류지 증산교에서 고창천 합류점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218억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 모집

임실군은 상수원 오염행위 감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모집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26명, 8월부터 10월까지 하반기 26명의 활동인원을 모집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옥정호 유역 주민과 환경 관련 자격증 소유자, 기동장비 소지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 곤란자를 우선 순위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4월부터 상수원 내 쓰레기 정화 활동과 차량 세차, 낚시, 오토 투기 등 옥정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 또는 옥정호 관리사무소(☎640-4113)에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여기행이나 갈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원, 인조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천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